2027학년도 경기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언어·사회 · 논술우수자)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언어·사회 두 문항).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2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점은 표기하지 않으며 문항별로 A E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문항 1 [언어] (450 ± 50자)　　문항 2 [사회] (700 ± 50자)
3.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칸에 작성합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대비 모의논술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경기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두 문항을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언어]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벚나무 아래에 긁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의 것부터 푸슥푸슥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낮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가득히 담겨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가제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음영(陰影)과 윤택(潤澤)과 색채(色彩)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린 꿈을 잃은 헌출한 뜰 복판에 서서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가난한 벌거숭이의 뜰은 벌써 꿈을 매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탓일까.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 벌써 추억에 잠기고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가을이다. 가을은 생활의 시절이다. 나는 화단의 뒷바라지를 깊게 파고 다 타 버린 낙엽의 재를 — 죽어 버린 꿈의 시체를 — 땅속 깊이 파묻고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 속의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긷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도 물론 이런 감격에서부터이다. 호스로 목욕통에 물을 대는 것도 즐겁거니와 고생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조그만 아궁이로 나무를 태우는 것도 기쁘다. 어두컴컴한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서 새빨갛게 피어오르는 불꽃을 어린아이의 감동을 가지고 바라본다.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새빨갛게 타오르는 불은 그 무슨 신성하고 신령스러운 물건 같다.

이효석, 「낙엽을 태우면서」

나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한용운, 「알 수 없어요」

[문항 1] 가의 ㉠을 나의 시어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나의 ㉡이 가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서술하시오. (450 ± 50자)

[사회]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공재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재화이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이익만 따진다면 ㉠누구도 비용을 내려 하지 않아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데, 이를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아래는 네 사람이 처음 받은 1만 원씩을 기금에 낼지 정하고, 모인 돈을 두 배로 불려 똑같이 나누는 실험의 최종 보유금이다.

〈공공재 실험〉

나	나머지 세 사람	나의 최종 보유금
냄	모두 냄	2만 원
안 냄	모두 냄	2.5만 원
냄	모두 안 냄	0.5만 원
안 냄	모두 안 냄	1만 원

나 공공 도서관이나 병원을 짓기 위한 모금에서 기부자의 이름을 건물 벽면이나 명판에 새겨 주겠다고 알리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 경제학자들의 실험에서도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공개되는 조건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조건보다 공동 기금에 내는 돈이 대체로 많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너그럽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라고, 남들 앞에서 인색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을 꺼린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좋은 평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보상이 되므로, 기여가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그 보상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부는 손해만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기회이기도 하다.

다 2007년 12월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선이 충돌해 많은 양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들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해안에는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어 그 수가 연인원 100만 명을 넘었다. 이들은 누구에게서 대가를 받지도,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채 추위 속에서 바위와 자갈에 묻은 기름을 헝겊으로 닦아 냈다. 되살아난 바다의 혜택은 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돌아가지만, 그들은 이웃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함께 책임지려 하였다. (중략)

이처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내는 ㉡자발적 시민 참여는 재난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을의 골목을 함께 가꾸거나 지역의 공공 시설을 돌보는 일, 이웃의 안전을 함께 살피는 일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라 (1) 공공의 문제는 정부나 일부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할 책임이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일에서 이웃과 함께 지역의 일을 의논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2)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의 규범, 그리고 그들을 잇는 연결망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남이 내 몫까지 떠넘기지 않을까 의심하며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가 쉬워진다. 협력은 한 번 경험되면 다음 협력의 밑거름이 된다. 내가 기여했을 때 다른 사람도 기여하리라는 믿음이 쌓이면, 사람들은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덜고 기꺼이 먼저 나선다. (중략) 반대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경험이 되풀이되면 불신이 깊어져, 함께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조차 풀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쓸수록 늘어나고 쓰지 않으면 줄어드는 자원이다.

[문항 2] 가의 ㉠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라를 바탕으로 다의 ㉡의 의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700 ± 50자)

〈끝〉